

김소월과 윌리엄 워즈워스의 자연시 비교분석*

양 현 철
(나사렛대학교)

Yang, Hyun-chul. "Comparative Study of Kim Sowol's and William Wordsworth's Nature Poetry."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8.1 (2022): 65-8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contrast between William Wordsworth's and Kim Sowol's nature poetry. They were influenced by the romantic movement. Their imagination was similar in their pursuit of romantic spirit in nature. They shared some characteristics by emphasis on the individual's expression of romantic feelings and emotions. Their understanding of nature was very similar; "the idea of being one with nature". They recognized a spirit in nature and tried to be one with nature.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ursuit of accord with the spirit of nature. Sowol experienced his unhappy condition under the tragic situation of Korea in 1920's. Sowol considered that as Korea was dominated by Japan he couldn't be one with nature and always kept away from nature. Wordsworth thought that the modern civilization acted as a significant obstacle that separated humans from nature. The mind of people had been corrupted by modern civilization. Wordsworth recognized that as the nature had the holy spirit, we could be one with nature. Wordsworth expressed in his poems that the sick mind of people could be overcome by getting closer to nature for the purpose of becoming one with nature. (Korea Nazarene University)

Key Words: imagination, romanticism, nature poems, civilization, human mind

I. 시작하기

동서양을 막론하고 낭만주의 시인들은 주로 자연을 자신들의 시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연의 수용 방법과 사고방식은 크게 다르다. 동양의 시인

* 이 논문은 2021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들은 자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관적인 사고방식을 중요시 하였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지 않아 자연에 대한 이해도 대단히 직관적이었다. 반면에, 서양 시인들은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지배적인데, 이는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대상에 접근해 가는 방식도 주관적으로 이미 설정해 놓은 개념에 의해 대상을 인식하고 그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서양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1770~1850)는 자연을 인간에 대립되는 자연물, 그리고 일정한 자연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대상으로 보는 서양 시인들의 기계론적 자연관을 따르지 않았다. 워즈워스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분법적인 관점, 주관과 객관 그리고 실제적인 것과 이념적인 것,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같은 이원화의 기계론적 자연관의 반대인 유기체적인 자연관을 자신의 시에서 보여주고 있다(서준섭 12). 또한 워즈워스는 스스로를 가리켜 ‘자연 시인’이라고 불렀는데, 그가 우주와 자연에서 경험했던 것은 인간과 연결된 하나의 생명력이며 하나의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워즈워스의 자연시가 범신론적 특징을 지닌 이유는 자연에서 시인의 상상력이 고양되었을 때 삼라만상이 하나의 존재를 통해서 그를 자연만물과 하나로 연결해주는 어떤 초월적인 영과의 교류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월의 자연 시에서의 영적 체험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양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인 김소월(1902~1934)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산, 들, 구름, 풀등 다양한 삼라만상에는 영혼이나 정령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자연의 삼라만상에는 초자연적인 존재인 영이 깃들어 있다는 소월의 샤머니즘적 관점(김열규 40)은 자연만물이 모두 신의 피조물로서 아무리 미물이라도 그 안에는 성스러운 영이 깃들어 있다는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관점과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월과 워즈워스 사이에는 신의 속성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자연에서 초자연적 영혼을 만난다는 점이 서로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워즈워스의 범신론적 상상력과 소월의 민간 신앙적 상상력은 동서양의 시각에서 명칭만 다르게 불릴 뿐 그 내용과 특성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소월은 자연에서 영원을 느끼고, 워즈워스는 상상력을 통해 자연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영혼을 느끼면서 체험한다. 요컨대, 소월의 영성은 민간신앙적인 차원에서 사

머니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워즈워스는 자연물을 모두 신의 신성한 피조물로 보았고 그 안에 신성한 영혼이 존재한다는 범신론적인 특성을 지녔다. 워즈워스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정신이나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 파악하며 이러한 자연과 일체됨으로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 삶의 환희와 창조적 힘을 얻게 된다. 더 나아가 워즈워스는 자연과 인간이 일체가 됨으로서 느끼는 환희와 기쁨은 인간의 삶의 고뇌를 치료해 주는 정신적 영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워즈워스는 자연에 있는 영에 의한 인간의 영혼의 치유 능력과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인간 삶의 고난에서 지든 영혼을 자연은 회복시켜 준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처럼, 소월과 워즈워스 두 시인 모두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고의 순간을 보냈고 시적 영감을 얻었다. 그들은 현실에서 좌절되고 삶에 고뇌를 느낄 때 주로 자연을 찾았다. 소월의 시에서 자연은 실제의 자연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상실된 조국을 의미한다. 서정주는 “소월은 워즈워스처럼 늘 자연과 일체가 되고 싶지만, 소월과 자연과의 사이에는 초월할 수 없는 거리가 있다”고 언급했다(70). 왜냐하면 소월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단지 자연을 ‘저 만치’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워즈워스의 시는 대체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감을 이룰 수 있다는 주제를 대부분 보여준다. 여기서 자연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만물을 의미한다. 그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았고 인간과 자연의 완전한 조화를 추구했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살아서 움직이며 숨을 쉬고 창조하는 영이 있는 곳이 바로 자연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세상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영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사고이다(Jonathan Bate 49). 워즈워스가 쓴 시들은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즐거움과 평화뿐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영을 노래했다. 그는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았고 그 안에서 인간과 자연은 끊을 수 없는 강한 생명력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자연 안에서 ‘하나의 생명력’(one life)을 느끼고 이것을 노래한 것이다. 이처럼 워즈워스는 주로 자연을 시의 소재로 삼으면서도 자연을 통한 심오한 명상의 깊이를 드러낸 ‘자연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자연시는 주로 자신이 태어난 호수지방의 드넓은 호수와 깊은 계곡 등 장대한 자연을 배경으로 삼았다.

소월에게도 워즈워스처럼 자연은 초자연적인 영혼이 존재함을 체험케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월에게 자연은 워즈워스와 달리 초월적 영역에 속한 자연속의 영인 님을 향해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저만치’에 님이 존재하는 그러한 장소이다. 이러한 자연은 그가 처한 식민지 치하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주며 그가 추구하는 님과의 어쩔 수 없는 단절을 암시한다. 따라서 그의 시에는 시인의 이러한 슬픈 감정과 허무함이 그대로 묘사되어있다. 이와 반면에 워즈워스에게 자연은 신비스럽고 숭엄한 신의 존재를 맛보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이러한 자연의 배경 속에서 자연과 시인이 일체가 됨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을 누린다. 김희선은 “워즈워스가 자연에서 느끼는 숭엄함의 감정은 자연에 대한 인간 정신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자연에서 시인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74).

본고에서는 영국과 한국의 낭만주의 시대를 각각 대표하는 두 시인인 워즈워스와 김소월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지닌 자연관이 각각 자신들의 대표적인 작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논하겠다.

II. 작품 분석

2.1 윌리엄 워즈워스

원래부터 자연을 사랑하던 워즈워스는 자연 속에서의 인간은 행복하다고 느꼈다. 이는 자연에는 인간의 내면 정신과 비길만한 신성한 어떤 존재인 영이 있어서 우리가 하여금 자연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사상을 의미한다. 즉 워즈워스가 모든 자연에 신이 존재한다는 범신론적 종교관을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사상은 자연 속에서 어떤 신비감을 느끼고 그러한 자연의 신비감 속에서 다양한 행복과 평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자연사상은 인간과 자연, 신에 이르는 절대적인 어떤 관계로서 자연에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자연이 곧 신이라는 범신론적인 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워즈워스는 『서정민요집』(*Lyrical Ballads*) 서문에서 자연 속에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이 속박을 받지 않고 쉽게 성숙해질 수 있어 그 감정을 평범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15). 그는 생명의 근원이 된 자연을 성찰하고 이해하며 사랑하였다. 자연 속에 있는 생명력을 살필 줄 알았던 워즈워스에 대하여 스퍼전(Caroline Spurge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워즈워스는 마음이 순수한 시인이었으며, 자연을 사랑했고 언덕과 계곡과 구름과 꽃의 아름다움을 명상하면서 커다란 기쁨과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이러한 기쁨을 발견하도록 권면했다.

Wordsworth was a simple-minded poet, with a passion for nature, he found great joy when he saw dales and clouds and flowers, and urged others to find this too. (Jacomina Kortelling 102, 재인용)

워즈워스의 이러한 ‘범신론적 자연주의’는 다양한 자연 모습들 중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양상들을 강조하고 본질적으로 자연은 인간의 마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모든 자연 만물들 앞에서 인간들이 자연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이 언제나 수동적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비록 자연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지만 이러한 자연에 영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바로 인간이기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그럴 경우에 자연은 시인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시적 영감과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 자연의 에너지로 가득찬 시인은 자연 속에서 영성을 감지하며 환희에 전율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시 세계를 펼쳤다.

이처럼 워즈워스는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사상의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는 자연의 영혼과 자신의 영혼의 교감을 통해서 감정을 순화시켜 인간 정신에 유익한 고차원적이고 추상적 철학 사상에 도달한 것이다(정해성 72). 그는 일상 속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 속에서 특별한 것을 보는 능력을 가진 시인이었다. 그는 자연을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고 성장하고 유기적인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의식은 어린 아이와 동심의 세계라는 그의 시의 주제를 통해 자주 표현되었다. 어린 아이는 자연의 순수함을 지녔고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우주에 존재하는 영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워즈워스는 자연을 언제나 아름다운 형상을 통해 인간에게 정신력을 회복시키는 어떤 힘을 지닌 존재로 여겼다. 그의 시 중에서 「내 가슴은 뛰나니」(“My Heart Leaps Up”)는 워즈워스의 이러한 자연관이 잘 요약된 시이다.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나니.
내 인생이 시작했을 때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노라.

장차 나이가 먹어서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리고 내 생애의 날들이
하루하루 자연이 베푸는 경건한 생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노라.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So is it when I shall grow old,
Or let me die!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¹ (164)

이 시는 시인이 자연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연과 동화된 느낌을 그렸다. 인위적이며 권태로운 세속적인 도시에 살며 정서가 메마른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자연이 제공해 주는 본능적인 환희를 느낄 수 없다. 이 시에서 시인은 “내 생애의 날들이 / 하루하루 자연이 베푸는 경건한 생각으로 / 이어지기를 바라노라.”며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노래했다.

1 본 논문에서 인용한 시들은 페리(Parry)가 편집한 *William Wordsworth Selected Poems*. Essex and New York: Longman, 1982.에 수록된 시로 이후 본 논문의 시 인용은 페이지 수만 기재함.

워즈워스는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며 정신적으로 교감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연과 항상 가까이 하면서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는 정신으로 자연과 교감을 가질 때 매일 매일은 축복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년시절 기억과 회상이 인간성에 대한 회복력을 가지게 된다고 묘사하고 어린 시절 자연에서 인상적인 체험의 순간들이 힘겨운 도시 생활에 지친 어른들에게 힘과 자양분을 제공해 준다고 믿은 것이다. 이와 같은 동심의 회복이 평범하고 틀에 박힌 도시 생활을 초월하게 해주는 요인이 되며 나아가 도시 문명으로 황폐한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자연이라고 여겼다. 이처럼 시인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 묘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성의 회복을 꾀한 것이다. 결국, 그는 과거에 대한 회상과 상상력의 수법을 통해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그리며 이로 인한 인간성의 회복을 이 시에서 노래한 것이다.

워즈워스는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소외, 그리고 혁명의 환희와 좌절을 맛 본 후 소박한 자연 속에서 인간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시인이었다. 그는 자연을 유기체적인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 스스로 도시 문명에 찌들어 자연과 유리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인간성을 회복키 위해 자연으로 회귀한 시인이다. 그는 자연과 분리된 자아와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키 위해서 자연 속으로 돌아가 이를 극복하고 자연과의 합일의 단계에까지 발전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은 도시의 삶에 찌든 시인의 외롭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는 한편 이웃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연과의 교감의 순간은 고요한 사색과 달콤한 감흥을 시인에게 선사하면서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지고의 상태로 까지 한껏 끌어 올렸다.

워즈워스의 또 다른 대표적인 시 「틴턴사원」(“Tintern Abbey”)에서 시인은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요함 그리고 평온함 속에서 자신의 일상이 자연을 통해 어떻게 순화되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형상들은
오랫동안 보지 않았어도 나에게
맹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풍경과는 달랐다.

그러나 종종 고독한 방에서
 그리고 도시의 소음 속에서 지긋지긋한 권태가 생길 때
 나는 이들 아름다운 형상들 덕분에
 감미로운 충동을 피 속에서 느꼈고
 그것은 심장을 따라서
 나의 가장 순수한 정신 속으로 스며들어
 조용한 회복을 얻게 된다.

These beautiful forms,
 Through a long absence, have not been to me
 As is a landscape to a blind man's eye;
 But oft, in lonely rooms, and 'mid the din
 Of towns and cities, I have owed to them,
 In hours of weariness, sensations sweet,
 Felt in the blood, and felt along the heart;
 And passing even into my purer mind,
 Of unremembered pleasure; (79-80)

이 시에서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운 형상들”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내적 치유와 평온을 얻고 있다. 그는 자연이 소유한 신비한 치유의 능력을 믿었고, 자연이 주는 생명력을 통해 정신적 힘을 얻었던 것이다. 그는 자연 속에서 하나의 ‘영’(spirit)을 직감했는데, 자연은 아름다운 형상을 통해 우리의 정신력을 회복시켜주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또 느꼈다.
 고양된 사상의 환희로 내 마음을 동요시키는
 어떤 실재를, 그것은 하나의 숭고한 느낌이고
 아주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다.

And I have felt
 A presence that disturbs me with the joy
 Of elevated thoughts; a sense sublime
 Of something far more deeply interfused, (81)

자연에서 느끼게 된 “어떤 실재”는 “하나의 숭고한 느낌”이 되어 시인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게 된다. 이것은 그의 자연에 대한 추구가 단순히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자연애와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효용적 측면을 뛰어 넘는다. 스페르전이 “그에게 즐거움과 평화를 준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생명력이었다.”(It was not the beauty of Nature which brought him joy and peace but the life in Nature.)(Jacomina Kortelling 102, 재인용)라고 지적한 것처럼 자연은 시인의 정신적인 황폐함을 치유해주는 의사 역할도 하고, 때로는 도덕적 본능을 회복시켜주는 성직자가 되기도 한다. 요컨대 자연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귀의하게 되는 안식처라고 워즈워스는 생각했다. 시인은 자연의 외적인 형상들을 묘사하는 단순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상상력과 내적 정서를 자연 속에 투영시켰다. 그는 이러한 자연 속에서 인간성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위대한 존재인 영을 느끼게 되는 도덕적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즉, 자연이 주는 생명력을 통해 영혼의 구원 차원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워즈워스가 자연을 대하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인간 본성의 회복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가 자연을 찾게 된 계기가 물질문명에 찌들어 일상의 삶이 메말라 버린 도시 생활을 비판한 「우리는 너무 세속에 물들어 있네」(“The World is too much with us”)를 보면 그가 자연을 찾았던 동기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세속에 물들어 있네.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벌고 쓰면서, 우리는 힘을 소진시키고 있으니.
 우리는 거의 보지 못하네. 우리 것인 자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내팽개쳤네. 너절한 축복이여.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 late and soon,
 Getting and spending, we lay waste our powers;
 Little we see in nature that is ours;
 We have given our hearts away, a sordid boon! (18)

이 시에서 시인은 물질만능적이고 실용 중심적인 기계론적 자연관을 극복하고

자연 속에 있는 생명력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통해 즐거움과 평화를 얻으려고 추구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도시의 발달로 일어난 인간 소외에 대한 각성이 그가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워즈워스의 시는 그가 자연에 대한 깊고 특별한 사랑이 인간을 향한 애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연 속에 깃든 신비로운 대자연의 영성을 찬미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연과 인간과 신비로운 관계를 느끼었다. 또한, 그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삶의 진리를 속삭여준다고 믿었다. 그의 시 『틴틴사원』에서 “자연은 결코 그를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을 배신하지 않는다.” (Nature never did betray / The heart that loved her.) (122)는 자신의 깨달음을 말했다. 이처럼 워즈워스는 자연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시인이었고 자연에 존재하는 영(spirit)속에서 즐거움과 위안을 느끼는 시인이었다. 그는 자연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고향이며 인간들에게 깨달음과 보편적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자신의 시를 통해 보여주었다. 결국, 워즈워스는 자연이 인간에게 교훈과 위안을 주며 인간은 자연과 동반자로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그의 작품 세계에서 적절히 잘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김소월

김소월은 자연 대상물을 자신의 심정과 관계 속에서 연관시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인식을 자신의 시에 잘 반영시켰다. 그의 시에서 자연은 시의 화자의 심정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는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심정을 교차해 가며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심정이 심미적인 차원에까지 승화되도록 하였다. 예컨대 자신의 원망의 심정 후에 영롱한 달빛을 배치함으로써 한과 슬픈 심정을 미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인간의 사소한 슬픔이 그의 시에서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소월 시에서는 자연 소재가 언제나 시의 중심을 이루는데, 이러한 자연 소재

들 대부분은 시인의 객관적 상관물이며 시인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왕의건은 “소월이 자신의 시에서 자연물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알맞게 연관시켜 화자의 감정을 더욱 더 생동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게 하였다”(37)고 소월 시를 평하였다. 이처럼 소월 시에 있어서는 단순히 자연 묘사만을 위한 것은 찾아볼 수 없으며, 언제나 자연 이면에는 인간적인 고뇌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잔디,
 잔디,
 금잔디,
 심심산천에 붙는 불은
 가신 입 무덤가에 금잔디.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
 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
 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
 심심산천에도 금잔디에.² (198)

이 시에서 시인은 이른 봄의 자연 풍경을 그리고 있다. 시인은 비유법을 사용해서 햇빛이 잔디를 비추는 것을 붉게 타오르는 불에 비유하였다. 이러한 표현이 이 시의 전체적인 자연 풍경을 두드러지게 만들어 준다. “가신 입 무덤가에 금잔디”는 화자가 사랑하는 입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감정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시인은 무덤부터 시작하여 버드나무 끝과 심심산천으로까지 영역을 넓혀가며 봄빛 아래의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한 자연 경치 안에 자신이 사랑하는 님을 향한 시인의 마음도 그 속에 담겨있다. 그러나 시인이 그리는 입은 ‘가신 입’이기에 이승에 있지 않고 저승에 있다.

이처럼 소월에게 있어서 자연은 항상 그 거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거리 또한 지속되었다. 이 시에서 ‘가신 입’은 상실된 조국을 의미하며 식민 지배 세력 속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자신과 자연 사이의 거리가 소멸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소월은 늘 자연과 일체가 될 수 없었고 그저

² 김용직, 『김소월 전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이후에 인용되는 시는 페이지만 기재함.

바라만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소월 시는 자연이 개입되지 않은 작품들은 거의 없고 또한 자연만을 노래한 작품들도 거의 없다. 겉으로 보기엔 시인이 단순히 자연 현상을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인 자신의 외로움이나 슬픔 등 시인의 내적인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소월 시에서 자연은 화자의 심정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는 자신의 심정을 일방적으로 노출한 것이 아니었고 감정 이입된 자연의 모습을 단지 보여주는데 그치지도 않았다. 그는 자연의 경치와 인간의 심정을 오가며 서로 간의 교묘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현재 처한 자신의 정신적 상황을 심미적 차원으로 승화되도록 노력 하였다. 예컨대, 그는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인간의 사소한 슬픔이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게 하였다. 특히 시인은 일제 치하에서 살면서 자신과 자연과 일체가 될 수 없었고 그저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에서 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인과 자연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소월의 대표적인 시는 바로 「산유화」이다. 이 시는 전형적인 서정시로서 네 부분으로 나뉘고, 간결한 시적 언어를 사용하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시청각적 감각을 통해 산에 꽃이 피어있고, 새가 지저귀는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시 속에서 반복되는 구는 독자들의 감정을 더욱 고조시킨다. 사계절의 변화와 꽃들이 피고 지는 묘사를 통하여 생명과 자연에 대한 존경심과 찬미를 표현했다. 더 나아가 이 시는 인간의 숙명적인 삶의 원리를 소멸과 생성이라는 자연법칙 속에서 노래하고 있다. 즉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특히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야하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세계와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하는 인간의 갈등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단순히 자연과 자아의 불연속성을 나타낸 것도 아니며, 자아와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자아와 자연의 대립, 혹은 시인이 자연과 합일하고자 하나 합일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정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시로 읽을 수 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180)

위의 시 제1연에서 꽃이 피는 장소는 산이며 현재 꽃이 피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다. “갈 봄 여름 없이”에서 이 시에 사계절의 순환이 있으며 꽃은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것을 반복한다. 제2연에서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라는 구절에서 “저만치”는 시인과 자연과의 거리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리감은 오히려 시인의 자연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나타낸다. 왕의건은 “소월 시에 나타난 자연과의 대립은 근본적으로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리감에서 발생했으며, 이 시는 사계절의 순환을 따라서 피고 지는 꽃과 그 꽃과 함께 어울려 산에서 사는 새 등의 자연물을 사용하고 순간적인 삶에 대한 인간의 고독과 비애를 노래하고 있다”(31)고 하였다.

이처럼 이 시에는 인간이 처한 실존적 한계 상황과 시공간의 제약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영원한 자연 세계와 ‘저만치’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절제된 비애감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산에서 혼자서 고독히 피어 있는 꽃과 그러한 꽃이 좋아서 산에 사는 새들은 모두 자연물로서 인간의 세속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권희철은 “소월의 자연에는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의 순환질서가 부각됨으로써 일회적 삶을 사는 인간의 고독한 실존적 삶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제목으로 쓰인 ‘산유화’는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슬픔과 열망을 상기시킨다.”(63-4)고 하였다. 요컨대,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열망이 이 시에서는 ‘저만치’의 거리감으로 표현되어있고,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황송문은 “소월에게 저만치의 세계는 자신의 정신 영역을 넓히고 해방시키는 허구적 시의 세계요, 이만치의 세계는 현실적인 생활이라는 가정과 사회의 끈으로 자신을 졸라매는 억압과 구속의 세계로 가늠할 수 있다.”(195)고 했다. 김동리는 ‘저만치’를 ‘자연과의 거리’라고 하며 이 말은 인간과 자연 혹은 신에 대한 거리라고 보았다(120).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시인은 꽃과 함께 자연과 하나가 되어 어울려서 지내고 싶어 하지만 식민지하의 현실 아래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실제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기 힘든 현실적인 거리를 ‘저만치’라는 마음의 거리로 적절하게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월 시에서 자연 사이에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처한 암담한 사회 현실을 반영해 주는 표현이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180)

제3연에서는 꽃에서 울고 있는 새에게로 시의 대상이 옮겨간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는 꽃이 좋아서 산에 사는데, 꽃에게 다가갈 수 없어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낀다. 이것은 바로 시인의 감정이 이 시에 투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에서 시인, 꽃과 새 모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새에 대해서 왕의건은 “시인이 희망하는 자연의 품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시인의 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영원성과 거리가 먼 고독감을 지니고 살아야한다는 시인의 비애의 한도 나타내고 있다”(31)고 지적하였다. 제3연의 마지막 행에서 “꽃이 지네”는 자연 법칙에 의해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지듯이 인간도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제1연의 1행과 “꽃 피네”와 호환되었으며 시의 완결성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월의 대표작인 「산유화」는 결국 인간의 운명적인 삶의 원리를 생생과 소멸이라는 자연법칙 속에서 파악하였다. 자연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존재 원리와 그러한 세계와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등을 이 시는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단순하게 자아와 자연의 불연속성을 표현한 것도 아니며, 자연과 자아의 합일을 추구하는 시도 아니다. 그래서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자

아와 자연과의 대립, 또는 자연과 자아가 합일하고자 하지만 합일하지 못하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시로 읽힐 수도 있다. 이러한 소월의 자연에 대한 관점이 대부분 그의 다른 시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결국, 소월은 자연 대상을 언제나 자신의 심정과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자연의 경치를 통하여 자신의 심정을 자신의 시에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III. 나오기

본고는 동서양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인 김소월과 워즈워스의 자연시를 중심으로 그들이 어떠한 자연관을 지녔는지를 각각의 작품의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았다. 두 시인의 고향은 각각 그들 자연시의 출발점이자 영혼의 안식처였다. 그들은 이러한 자연 속에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보냈고, 시적인 영감과 자연의 감수성을 얻게 되었다. 특히, 그들이 현실에서 좌절되고 실망을 느낄 때 삶의 안식처인 자연을 찾아 각자 정신적인 위안을 얻었다.

워즈워스의 자연은 보다 진실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워즈워스는 산업화와 도시 문명으로 인하여 황폐화되고 단절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자연을 잊지 말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존재하는 자연의 영과 교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워즈워스는 도시 문명에 찌든 심신을 달래고 활력을 회복키 위해서 자연을 찾은 것이다. 그곳에서 자연과의 교류를 통하여 인간성을 회복하고 다시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자신의 시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워즈워스가 자연을 하나의 사물로 보거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겼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는 살아 있는 영이 늘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사상은 그가 어린 시절에 자연이 시인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이로운 생각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의 영이 인간의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는 치유력을 지니고 있고, 그러한 자연이 시인의 기계 문명과 삶에 찌든 심신의 평정을 회복해 준다고 믿었다. 이것은 자연 속에 내재해 있는 초자연적인 영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시인은 이를 자신의 시에서 노

래했으며 독자들은 시를 감상함으로써 정신적인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된다.

위즈워스와 달리 소월에게 자연은 영원을 경험하고 송고한 영혼의 체험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초월적인 영역에 속한 '님'을 향하여 끊임 없이 갈망하다 좌절하게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그가 처한 실존적 상황이며, 영원세계와의 단절이며, 그 결과 그는 허무의식과 비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연의 영성과 시인의 실존적 자아간의 이러한 대립은 소월의 시를 더욱 엄숙하고, 경건하고, 비극적 인식으로 인한 송고한 비애감을 느끼도록 승화시켜주고 있다. 더욱이 그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대할 수 있는 자연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러한 자신의 고독이나 슬픔 등을 그의 시에서 표현하였다. 예컨대, 들꽃, 잔디, 산새 등 자연에 대한 묘사를 통해 조국에 대한 동경 및 해방, 소망 등 감정을 자신의 시에서 적절히 표현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시인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소월은 자연의 영성 앞에서 슬픈 비극적인 실존의식을 찾게 되는 반면에, 위즈워스는 자연의 영성을 추구하고 자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시인이 처한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월은 1920년대 조국을 잃은 비극적인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위즈워스가 속한 19세기 영국은 유럽전역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추구하던 시기였다. 즉, 소월이 일제 식민 지하에서 절망과 비극의 시기에 살았던 것과 반대로 위즈워스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꿈과 희망의 시대에 살았다. 이러한 상반된 시대적 배경이 두 시인의 현실과 자아 인식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대한 인식 및 찬양,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표현, 도시 문명 등 현실세계에서 자연으로의 도피,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등을 믿는 태도 등 낭만주의 정신적 특성 등은 두 시인이 서로 함께 공유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Works Cited

- Kim, Dong-ri. "Distance from Chungsan." *Literature and Human*. Seoul: Mineum-sa, 1997.
[김동리. 「청산과의 거리」. 『문학과 인간』. 서울: 민음사, 1997.]
- Kim, Yol-kyu. "A Study on Symbolism of Korean Folk Religion." *Asia Studies*. Seoul: Asia Research Lab in Korea University, 1966.
[김열규. 「한국민간 신앙의 상징 연구」. 『아세아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1966.]
- Kim, Yong-jik. Ed. *The Collected Works of Kim Sowol*. Seoul: Seoul University Publishing Company, 1996.
[김용직 편저. 『김소월전집』.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Kim, Hui-son. "Gender Politics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Nature in Romantic Poetry: Especially in Wordsworth's Poetry." *Feminist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10.1, 2002.
[김희선. 「영국 낭만주의 시에 있어서 자아와 자연과의 관계에 내포된 성의 정치학—워즈워스의 시를 중심으로」. 『영미문학 페미니즘』 10.1, 2002.]
- Seo, Jun-sup. "Division between Intuition and Imagination." *Comparative Literature*. 1981.
[서준섭. 「직관과 상상력의 구분」. 『비교문학』, 1981.]
- Jung, Hae-sung. *Introduction to English Poetry of Romantic and Victorian Period*. Seoul: Dunam, 1998.
[정해성. 『낭만주의 및 빅토리아 조 영시 개관』. 서울: 두남, 1998.]
- Seo, Jung-ju. "Sowol and His Poems." *Korean Modern Poetry*. Iljisa, 1960.
[서정주. 「소월과 그의 시」. 『한국 현대시』. 서울: 일지사, 1960.]
- Wang, Yiquian. "Comparative Study of Kim Sowol and Ai Qing's Poems." *Gachon University Master Thesis*, 2012.
[왕의건. 「김소월과 아이칭의 시 비교연구」. 『가천대 석사 논문』, 2012.]
- Hwang, Song-mun. "Kim Sowol Man and the Poetic World." *Collection of Kim Sowol's Poems*. Seoul: Bumwoosa, 2001.
[황송문. 「김소월의 인간과 시 세계」. 『김소월 시집』. 서울: 범우사, 2001.]
- Bate, Jonathan. *Romantic Ecology: Wordsworth and the Environmental Tradition*. London: Routledge, 1991.
- Brett, R. L. & Jones, A. R. *Wordsworth & Coleridge: Lyrical Balla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1.
- Kortelling, Jacomina. *Mysticism in Blake and Wordsworth*. New York: Haskell House, 1966.
- Parry, P.H. ed. *William Wordsworth Selected Poems*. Essex and New York: Longman, 1982.
- Wordsworth, William. *The Prelude*. ed. J.C. Maxwell. New York: Penguin Books, 1971.

양현철 (나사렛대학교 / 교수)

주소: (3117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학교 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이메일: hcyang@kornu.ac.kr

논문접수일: 2021. 12. 31 / 심사완료일: 2022. 02. 07 / 게재확정일: 2022. 02. 10